

문화전당, 5월단체 구상권 청구 철회 주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18단체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 시효가 내년 1월 6일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정부의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이나 구체적인 구상권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시효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점차 깊어져 시효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5월 정신의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마냥 끌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와 지역 사회가 윈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에 대해 문화전당측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정부의 입장은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절거 농성과정에서 벗어난 피해액 110억원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액 산정이 중요하네 정확하게 산

내년 1월6일 시효 앞두고 정부 방침 확정 안돼 '5월 정신 계승' 문 정부, 지역사회 윈윈 바람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18단체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 시효가 내년 1월 6일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남 민주평화교육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5월단체들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다. 물론 정부가 지난해 국회회의에서 34억 원에 달하는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을 때 야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전례가 있어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약속하고 복원 실무 전담팀이 꾸러지

는 단계에서 이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거봉 5·18재단 사무처장은 "최후 항쟁지를 보존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나온 마당에 구상권 청구는 합의정신을 저버릴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측의 고민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사회적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문제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지난 9월 문화전당의 구상권 행사 검토와 관련 정부의 대응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이 문제가 분열과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정부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촉구농성"이 갖는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갈등 해소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구상권 행사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와 시민이 격의 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협의의 모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점유 한 가닥으로 탈수 여부 확인

GIST·경기대 연구팀 '웨어러블 땀 센서' 개발

한국연구재단은 26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윤명환·경기대 주상현 교수 연구팀이 단일 가닥의 고분자 섬유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땀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땀 센서는 땀의 이온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기기다. 탈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 탈수 민감도가 낮은 폭염 취약계층의 경우에 땀 센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센서에 포함된 반도체 소자는 대부분 2차원의 얇은 막 형태다. 유연성이 부족한 데다 박막 규격에 따라 성능 변화가 생겨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팀은 1차원 섬유 가닥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구현한 뒤 이를 기반으로 사용 편리성을 극대화한 땀 센서를 제작했다.

직물에 센서 한 가닥을 삽입하면 되는 간단한 제작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였다.

고분자 물질 특성에 의해 장기간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된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기존보다 생체 적합성도 높아졌다.

센서는 아올러 95% 이상의 높은 재현성과 정확성을 보였다.

반도체 규격에 상관없이 이온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기법을 적용한 덕분이다.

연구팀은 이온 농도 변화와 측정전류 변화비가 비례하는 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윤명환 교수는 "수계 전도성 고분자 응용성을 기존 2차원 박막 소자에서 단일 섬유 형태 소자까지 확장한 것"이라며 "신 개념 섬유 기반 이식형 생체 전자소자 출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민간기술협력사업,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했다.

이날 네이처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NPG 아시아 머티리얼즈'(NPG Asia Materials)에 특집으로 논문이 실렸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더디 가는 북미고위급회담

北 침묵 속 12월로 연기될 듯... 남북·북미정상회담도 지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는 분위기다.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신속히 잡히지 않으면 연내 김정일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 울 답방과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지금의 대화 분위기를 이고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영향을 있을 수 있다.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간)로 잡혔다가 연기된 북미 고위급회담은 미국이 27~28일께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미국이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협조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데 동의하고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일찌감치 발표해 대화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은 북한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참석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가 30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주중인 26~

27일 중에는 관련 동향이 포착돼 이달 말 고위급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은 26일 신중환 반응을 보였지만, 이달 내 고위급회담 개최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은 이달 초 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면서 '서로 일정이 분주하다'는 이유를 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이 쉽게 다시 잡히지 않으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 모른다.

우선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견해 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동장리 엔진시험장의 영구적 폐기에 더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는데, 미국이 제시한 카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제재완화를 원하는데 미국은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 협상 전략을 짜는 등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 맥락에서 현재 대미 협상을 주도하는 통일전선부와, 대미 협상의 전문성을 축적해온 외무성 사이에 '교통정리'가 될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속도 내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이번주 경의선→동해선 점검... 예정대로 진행 땀 연내 착공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는 남측이 제안한 날짜를 북측이 받아들인다면 이번 주 후반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만간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빠르면 이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 공동연구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에 이어 동해선 구간(금강산~두만강)을 조사하는 순서를 밟는다.

남측 기관차가 5~6량의 객차를 이끌고 남북한 뒤 북측 기관차로 바뀌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객차는 조사단원의 사무공간과 식당칸, 침대칸 등으로 구성되며 식수와 유류, 조사에 필요한 기구 등이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 북측 구간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에서 다시 내려와 동쪽으로 이동해 동해선의 레일과 침목 등을 점검하게 된다.

경의선은 약 410km, 동해선은 약 780km로, 두 구간을 모두 조사하는 데는 총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경제의 추동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조사 기간 착공식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착공식은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가 모두 끝나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식이 열린다면 남북간 혈액을 잇는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남북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지도 관심이 있다.

일반적으로 착공식은 공사의 첫 삽을 뜨는 행사이지만, 대북제재를 고려해 상징적인 행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씨름' 남북 공동 인류문화유산 등재

우리의 고유한 세시풍속 '씨름'이 사상 첫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을 통해 남북이 함께 등재한 첫 사례로 의미가 남다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 수도 포트루이스에서 개막한 제13차 회의에서 남북의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이례적으로 28~29일로 예정된 심사에 앞서 개최일에 씨름 공동 등재 안건을 상정한 뒤 24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등재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남북은 아리랑과 김장문화

(김치 만들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2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각각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려 공동 등재는 아니었다. 이번이 공동 등재된 '씨름'의 정식 명칭은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eum/Ssireum).

위원회는 "남북 씨름이 연행과 전승 양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평가기구가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해 전례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 등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투자자 모집★

- 경매 입찰/낙찰 물건
- 연 30% 이상 수익가능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임야

단독성/지분물건환영

바로잡니다.010-6834-7400

광주광역시 인구조번복지지원회 광주전남지회

'돈'돈'육아 성공비법

함께하면 돈은 육아 성공비법

- 직장내치문화 제로법: 직장일 후 다들 애를 쓰지 않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 슈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애매해서 할까 하는 애매하기!
- 육아훈수 주의법: 서민 육아에 훈수 대신 힘들지 마세요! 한끼만 인당!
- 육아대디 지지법: 애매한 육아에 관한 격려, 응원하기!
- 돈돈육아 동참법: 훈장이 육아, 아이 안전 지킴이, 나무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제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10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12월 21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보.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소유공장 만들어 드림!

2018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 ~ 2018년 12월 28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2월 15일(금)
- 매주 금요일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 12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H. 010-9416-1200 T. 062)230-77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전 1728㎡ 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2층 80㎡ 8700만원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 원룸 1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주택있음 은행 9600 매도 3억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용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장성을 의원건물 대지 340㎡ 건물 489㎡ 은행 2억 임대중임 3억5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양산동 대지 231㎡ 4층 안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잘됨 3억천
- 아파트 부지 답면 63530㎡ 평당 70(130억)
- 완도읍 새모델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김장기이해 23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